

# 중국,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국 부상

2009년 345억달러로 미국 제치고 1위 ... 미국은 186억달러로 절반 수준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Bloomberg Newenergy Finance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풍력발전, 태양광 패널, 기타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345억달러(약 38조9000억원)를 투자해 다른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을 제치고 청정에너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등 주요 기술제품 생산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5년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해온 미국은 2009년 투자액이 186억달러에 그쳐 중국의 50%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최악의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연방정부 차원의 청정에너지 계획 부재 등으로 청정에너지 투자가 전년대비 42% 급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9>